

## 금속산업 노·사 2024년 중앙교섭 시작

16일 1차 중앙교섭 상견례 ... 금속 최저임금 11,080원·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금속노조가 2024년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임·단협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을 상견례로 열었다.

박근형 금속사용자협의회 회장은 “13기 집행부 출범을 축하드린다. 이렇게 1차 상견례에서 뵙게되서 반갑다”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근형 회장은 “이번 총선을 보면 여러가지로 대립되는 양상이 상당히 많았던 터라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올해 우리 교섭의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쉬운 내용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박근형 회장은 “금속 노·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정 간의 관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라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같고 여러 이슈들이 있어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사 간에는 예년처럼 그래왔듯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고 수용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올해 금속노조는 임·단협 안을 만들면서 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섭의제를 포함했다”라며 “청년, 여성,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인력과 함께 산업전환, 녹색일자리, 안전,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안고 발전적인 2024년 중앙교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며 “노·사가 서로 도움이 되는 중앙교섭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교섭원칙과 2차 교섭 일정을 확정하고 1차 중앙교섭을 마쳤다.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생수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기로 했다. 2차 교섭은 4

월 23일 서울에서 교섭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3차부터 지역 순회 교섭을 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통일요구로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산별협약 제41조 ‘신규채용’ 개정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대정부 요구 등을 내세웠다.

중앙교섭 요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를 위한 금속산별협약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2항 신설 △금속산별협약 제47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항 개정 △금속산별협약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신설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등이다.